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

| 투자전략/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@kiwoom.com

키움증권

미 증시, 반도체주 강세에도, FOMC 경계심리로 눈치보기 장세 지속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9일(화) 미국 증시는 외사들의 목표주가 상향에 힘입은 브로드컴(+1.3%), 마이크론(+2.2%) 등 반도체주 강세에도, 9월 JOLTs 상 구인건수 증가(+767만건 vs 컨센 720만건) 등에 따른 12월 FOMC 경계심리 여파로 혼조세 마감(다우 -0.4%, S&P500 -0.1%, 나스닥 +0.1%).

이제 시장은 11일(목, 한국시간) 예정된 12월 FOMC(새벽 4시), 오라클 실적(미국 장 마감 후)을 놓고, 증시 방향성 베팅을 시작할 예정. 일단 12월 금리인하 여부는 미리 시장에 반영된 감이 짙은 만큼, 이번 회의에서는 부차적인 사안이 될 것. 실제로 12월 인하 전망이 강화되는 구간에서도 미 10년물 금리가 4.0%대 이하로 레벨 다운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12월 인하 여부의 중요성을 낮추는 요인.

이런 측면에서 26년 점도표 변화(9월 FOMC 상 26년 중간값 3.4%로 제시)가 증시 참여자들의 주요 격전지일 것으로 판단. 동시에 연준 위원들의 내부적인 의견 분열이 정리되고 있는지 여부도 간과할 수 없는 변수. 10월 FOMC에서도 금리인하에 반대표를 행사한 위원은 2명이었으며, 그 가운데 "매파적 반대(동결 주장)"와 "비둘기파적 반대(50bp 인하 주장)"이 동시에 출현하는 이중 분열이 발생했기 때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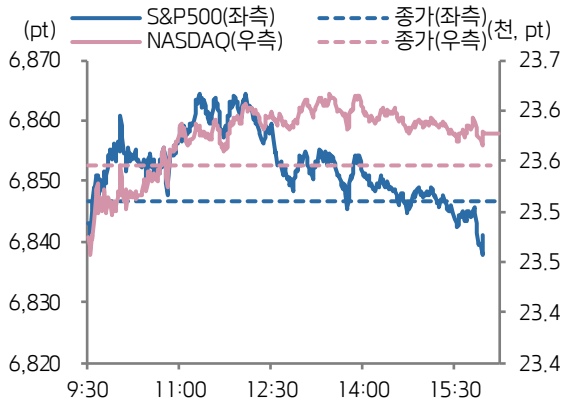
현재 외신, 주요 설문을 종합해보면, 이번 FOMC에서 2~3명 반대표가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상태(파월 의장 임기기간 중 반대표는 최대 3명이었으며, 1980년대 이후로는 최대 5명까지 반대표 출현했던 사례 존재). 만약 그 이상의 반대표가 등장 시 "연준 내 분열 심화 -> 향후 정책 경로 불투명성 증가"의 신호가 확산될 가능성 상존. 이는 증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, 차주까지도 그 여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적절.

AI 산업 버블 우려를 만들어냈던 오라클의 실적이 FOMC 직후 예정된 것도 일시적인 증시 방향성 혼란 요인. 이번 실적에서는 분기 실적 및 가이던스의 컨센 상회 여부도 중요하지만, 최근 대규모 회사채 발행에 대한 현실성 있는 자본조달 계획 제시 등에 시장의 관심이 더 집중될 전망. 또한 국내 증시에서는 같은 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따른 현선물 수급 변동성이 목요일 당일 증시 방향성을 일시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기에, 증시 포지션에 변화를 주는 것은 분할로 접근해 나갈 필요.

전일 국내 증시는 12월 FOMC, 오라클 실적 이벤트를 앞둔 경계심리로 장중 방향성이 부재한 채 반도체, 자동차 vs 조선, 방산 등 주력 업종간 엇갈린 주가 패턴이 나타나면서 혼조세 마감(코스피 -0.3%, 코스닥 +0.4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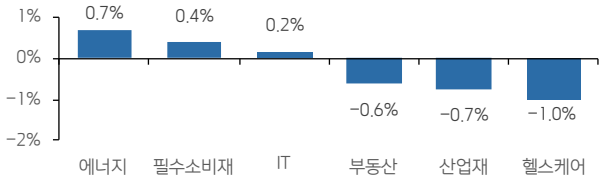
금일에도 12월 FOMC, 오라클 등 내일 새벽 몰린 이벤트를 놓고 눈치보기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. 다만, 전반적인 거래 감소 및 지수 방향성 부재 속에서도 국민성장펀드(10일 출범, 150조원 규모), 미국 스페이스 X의 26년 IPO 추진 소식(1.5조달러 규모) 등 테마성 재료는 상존하고 있는 만큼, 관련 테마주(반도체 소부장, 우주항공 등)들의 주가 변화도 지켜볼 만한 이슈라고 판단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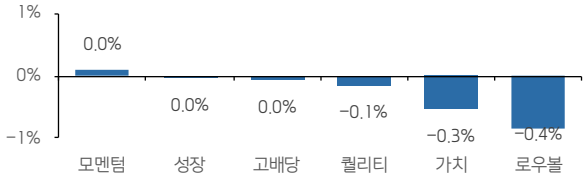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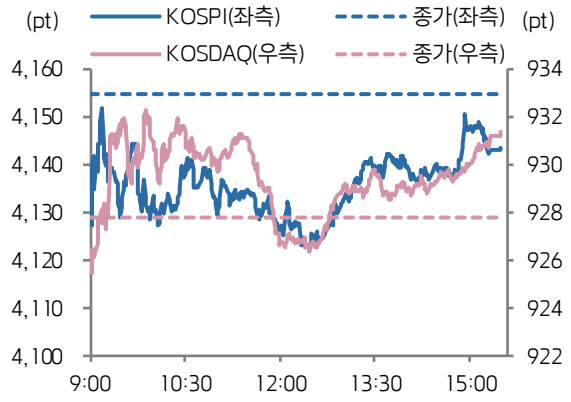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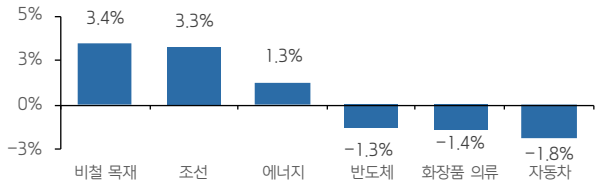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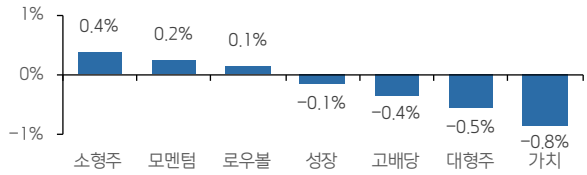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종목

종목	종가	DTD(%)	YTD(%)	종목	종가	DTD(%)	YTD(%)
애플	277.18	-0.26%	+10.69%	GM	77.16	+1.92%	+44.85%
마이크로소프트	492.02	+0.2%	+16.73%	일라이릴리	982.22	-1.54%	+27.23%
알파벳	317.08	+1.07%	+67.5%	월마트	115.06	+1.32%	+27.35%
메타	656.96	-1.48%	+12.2%	JP모건	300.51	-4.66%	+25.36%
아마존	227.92	+0.45%	+3.89%	엑손모빌	118.25	+1.96%	+9.93%
테슬라	445.17	+1.27%	+10.23%	셰브론	148.49	-0.15%	+2.52%
엔비디아	184.97	-0.31%	+37.74%	제너럴일릭트릭	115.06	+1.3%	+27.3%
브로드컴	406.29	+1.29%	+75.25%	캐터필러	594.36	-0.36%	+63.84%
AMD	221.62	+0.23%	+83.48%	보잉	200.37	-2.86%	+13.2%
마이크론	252.42	+2.23%	+199.93%	넥스트에라	79.64	-1.1%	+11.1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	외환시장			
지수	가격	DTD(%)	YTD(%)	지수	가격	DTD(%)	YTD(%)
코스피	4,143.55	-0.27%	+72.68%	USD/KRW	1,469.90	+0.01%	-0.16%
코스피200	585.76	-0.58%	+84.31%	달러 지수	99.23	+0.15%	-8.53%
코스닥	931.35	+0.38%	+37.33%	EUR/USD	1.16	-0.07%	+12.31%
코스닥150	1,603.17	+0.27%	+41.9%	USD/CNH	7.06	-0.13%	-3.76%
S&P500	6,840.51	-0.09%	+16.3%	USD/JPY	156.92	+0.64%	-0.18%
NASDAQ	23,576.49	+0.13%	+22.09%	**채권시장**	**가격**	**DTD(bp)**	**YTD(bp)**
다우	47,560.29	-0.38%	+11.79%	국고채 3년	3.084	+5.2bp	+48.9bp
VIX	16.93	+1.62%	-2.42%	국고채 10년	3.453	+5bp	+58.2bp
러셀2000	2,526.25	+0.21%	+13.28%	미국 국채 2년	3.613	+3.8bp	-62.9bp
필라. 반도체	7,372.51	-0.04%	+48.04%	미국 국채 10년	4.186	+2.2bp	-38.3bp
다우 운송	17,054.64	-0.49%	+7.29%	미국 국채 30년	4.808	+0.6bp	+2.7bp
상해종합	3,909.52	-0.37%	+16.64%	독일 국채 10년	2.850	-1.2bp	+48.3bp
항셍 H	8,936.41	-1.62%	+22.59%	**원자재 시장**	**가격**	**DTD(%)**	**YTD(%)**
인도 SENSEX	84,666.28	-0.51%	+8.35%	WTI	58.25	-1.07%	-14.19%
유럽, ETFs	**가격**	**DTD(%)**	**YTD(%)**	브렌트유	61.94	-0.88%	-17.02%
Eurostoxx50	5,718.32	-0.13%	+16.8%	금	4,236.20	+0.44%	+51.78%
MSCI 전세계 지수	1,008.04	-0.27%	+19.82%	은	60.17	+4.14%	+105.76%
MSCI DM 지수	4,405.03	-0.31%	+18.8%	구리	524.05	-2.31%	+30.15%
MSCI EM 지수	1,386.62	+0.08%	+28.93%	BDI	2,694.00	-1.21%	+170.21%
MSCI 한국 ETF	95.57	+0.53%	+87.8%	옥수수	448.00	+0.96%	-1.59%
디지털화폐	**가격**	**DTD(%)**	**YTD(%)**	밀	534.25	-0.09%	-12.95%
비트코인	92,511.26	+1.29%	-1.28%	대두	1,087.75	-0.55%	+5.22%
이더리움	3,304.59	+4.99%	-1.25%	커피	368.75	+0.7%	+32.05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12월 9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